

「닭 및 계란」에 대한 작문 현상공모 최우수상

# “어머니의 손맛”

-서울 이문국교 4학년 홍성민군이 차지-



▲작문현상공모 최우수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4일 여의도63빌딩 닭고기요리 경연대회 때 있었다.  
• 수상자: 홍성민 군

미래 소비층인 자라나는 세대에게 친근감을 주고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닭 및 계란에 대한 작문을 통해 계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가 지난 9월중 모집한 작문 483점 가운데 최우수작으로 서울 이문국민학교 4학년 5반 홍성민군의 "어머니 손맛"이 뽑혀 영예의 농림수산부장관상을 수상

하였으며, 시상금 30만원이 전달되었다.

이번 작문은 국민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작문의 내용 30점, 문장 20점, 구성 20점, 홍보효과 30점씩 배점기준을 두고 한국가금학회가 심사를 맡았는데 일선 국민학교 및 중학교 교사 각 1명씩 내정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였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홍성민군은



▲엄마와 함께 기념촬영

▲협회로부터 수상자라고 연락을 받고 너무 좋아 방에서 마루로 뛰어다녔습니다. 아빠(홍원표), 엄마(신미덕)도 이 사실을 듣고 함께 기뻐했어요.

▲엄마가 매일 해주시는 닭고기 요리 때문에 글을 쓸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요리는 닭고기를 넣어 만든 "닭전"을 잘 먹어요.

이렇게 닭고기를 잘먹어서인지 운동(야구)도 잘하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고맙고요 늘 글짓기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장차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게 소원이예요. 닭고기를 더욱 많이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 어머니의 손맛

나는 처음에 닭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닭고기뿐만 아니라 편식을 하는 편이라서 무엇이든 잘 먹지 않아서 어머니께서는 꾸지람도 하시고 걱정을 매일 하셨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닭을 안좋아한다며 처음엔 가끔 생닭을 사오셔서 국을 끓여주거나 야채를 넣고 볶음을 해주실뿐이어서 나는 고기보다 비릿한 냄새가 더 싫었고 기름기가 노랗게 있는것이 싫었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느긋겨려 소화제를 먹곤했다. 그렇다고 튀김닭도 캔터키도 잘 먹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아주 맛있는 카레를 먹게 되었는데 다 먹고 난뒤에 어머니께서 "맛있게 먹었니?"하고 물으셨다.

"네, 엄마 아주 맛있어요."

"그래, 엄마도 이제부터는 닭고기를 여러가지로 응용해야겠구나."하시며,

"그 카레속에 닭고기를 넣었더니 아주 다른맛이 나지"하셨다.

"엄마, 정말 닭고기가 들었어요?"하고 묻고는 나는 내가 닭고기를 넣은 카레를 맛있게 먹었음을 신기하게 생각했다. 먹고난 후에도 먼저처럼 느끼하다거나 비린 내는 나지않았다.

그후로 어머니는 닭요리 하시는데 만큼은 조금씩 요리사가 되어 가셨다. 재료는 닭하나이지만 튀김, 죽, 냉면, 냉채, 구이, 샐러드 등 수없이 여러 방법으로 만들어 보시고 우리식구 식사 때마다 새롭게 식욕을 돋구게 하셨다. 우리집은 증조 할아버지까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는 특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계란 요리도 즐겨 하시는데 그중에 계란탕을 잘하신다. 그럴때면 나는 가끔 바쁘신 어머니를 도와 계란을 깨뜨려서 그릇에 담은 일을 하곤한다. 어머니는 당근, 양파, 부추, 조개 등 여러가지를 함께 계란에 넣고 버무려서 펄펄 끓는 멸치 국물에 넣고 끓이신다. 그러면 맛있는 계란탕이 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계란으로도 찜, 조림, 찌개, 도시락 반찬 등으로 활용하신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많지만 그중에서 닭전과 닭고기숯불구이다. 살이많은 다리를 이용하여 다져서 여러가지 야채와 양념을 넣고 섞어서 밀기루를 묻히고 풀어놓은 계란을 씌워 후라이팬에 지지면 구수한 맛의 좋은 닭전이 된다. 가끔 손님이 오셨을 때마다 내놓으시는 닭고기숯불구이는 오시는 분마다 칭찬이 자자하다. 숯불을 피워서 양념한 닭을 구우면 냄새가 맛있게 온동네를 감고 돈다. 나는 가끔 어머니를 따라 슈퍼에 가면 어머니는 필요한 닭의 부분만 사시기도 한다. 날개라든가 다리부분을 따로 포장해서 팔으니까 적은돈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도시락 두개를 열으니 어머니께서 정성껏 싸주신 반찬들이 맛있다. 요즘은 운동회 연습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해하니 어머니의 수고도 그만큼 더하실 것이다.

이젠 편식하는 습관도 고쳐졌다. 언제나 다른 고기에 비해 영양가가 월등하다고 강조하시며 우리가족을 위해 열심히 닭요리를 또 계란 반찬을 개발하시는 어머니께 글을 통해서라도 감사 드리고 싶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양기**